

경내지 출토 유물 사찰이 주인

의정부지법 “회암사지 출토유물 회암사 소유” 판결 월정사 등도 소송준비... 관련법 개정 등 과제는 여전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정답은 국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매장 문화재는 사찰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해당 사찰에 소유권이 인정된다.

문중 소유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할맥을 인정해 문중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화재청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사찰이라 할지라도 스님들의 법맥이나 법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찰 경내지 출토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연 중심지 사고에 익숙한 문화재청이 옛날 사찰에 살던 스님들과 현재 살고 있는 스님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사찰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환 움직임 거세질듯

그러나 이같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 합의 12부(부장판사 김성관)는 양주 회암사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출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04년 12월 29일 문화재청과 양주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월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암사가 소실되어 없어졌지만 이후 조금 떨어진 곳에 현재의 회암사를 재건해 스님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옛 회암사와 현 회암

사를 동일한 사찰로 봐도 무방하다”며 “회암사 소유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현재의 회암사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찰이 경내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사찰 경내지 출토 성보 문화재에 대한 반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교구본사인 봉선사 해운 스님은 “불교 탄압책에 의해 불타버린 회암사를 지켜온 불교계의 노력과 사찰의 연속성을 법원이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에 대해 제자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찰 경내지 발굴은 1965년 분황사 건물지에 대한 발굴에서부터 2005년 선암사 경내 유적발굴까지 총 6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가운데 출토문화재가 사찰로 돌려진 사례는 도갑사, 나주 운흥사, 실상사, 축서사 등 4곳에 불과하다.

‘관련성’ 인정이 열쇠

특히 사찰 이름이 분명하게 명기된 유물조차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평창 월정사의 경우 최근 실시된 8799종석 및 석조보살좌상 주변 발굴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출토된 ‘月精(월정)’명 암막대 등 다수 사명이 있는 기와류 등 43점의 성보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

나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월정사와 함께 최근 발굴 조사를 마친 영동 영국사, 남원 실상사, 울산 등축사 등도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성보문화재에 대한 반환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사찰이나 불교법식과 전혀 관련없는 문화재가 아닌 이상 불교의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유산으로 해당 사찰에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존 사찰 경내지 및 소유 토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었다고 해도 해당 유물의 소유권이 현존 사찰에 있다고 일괄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찰의 법맥의 연속성, 해당 유물과 사찰의 관련성 등을 밝힌 이후에 소유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양주 회암사 소송을 계기로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법령 보완 및 행정지침의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46조 제1항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 신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략)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찰 출토 매장문화재는 사찰의 연속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0일간의 경찰서장 공고 및 거지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토 문화재에 대해 해당 사찰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해당 사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공고 기간에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더라도 30일동안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 사찰이 문화재 당시의 사찰과 동일할지 여부 등을 해당 사찰이 직접 입증하게 되어 있어 짧은 기간동안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폐사지 유물도 논의 대상돼야

조계종에서는 출토 유물과 사찰의 관계, 사찰의 연속성 문제를 결정할 전담 기구 설치를 명문화해 줄 것과 공명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성보문화재 관리를 위해 사찰 성보박물관의 역할 강화와 문화재 관리 시설을 늘리는 등 사찰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에 대한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이병희 행정관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과 하위 법령들이 출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과 보존 관리가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단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효율적인 성보 문화재 관리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월정사 경내지 이외의 폐사지 등 불교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규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인사에서 만나는 백남준의 예술혼

1월 30일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을 다수 남겼다. 이제 그의 육신은 만날 수 없지만 뜨거운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백남준은 2002년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높이 7미터

(천정화 포함) 길이 10미터 크기의 대작 ‘팔만대장경’을 설치했다. 고려대장경의 조성 과정, 중생의 열원, 우주의 무량함 등을 그림과 12개의 모니터를 동원해 종합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백남준씨가 불교계에 준 큰 선물이다. 관련기사 12·19면 해인사=배지선 기자

엄정수사·진실규명 촉구

종단협, 황우석박사 관련 성명내기로

4월 중국서 ‘세계불교포럼’

황우석 박사와 관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불교계의 주장이 공식 제기된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월 3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 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회원일동 명의로 2월 10일 이전에 황우석 박사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항주와 주산에서 중국불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불교포럼’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의로 5백톤 내외(식기 2억3천만원)의 요소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중파 방송인 경실외의 기독교계 인수시도에 대해 내주안에 불교계의 우려를 담은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올해 △3·1절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3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4월) △봉축법회(5월 5일) △6·15 기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6월) △한국문화 해외에 알리기 사업(연중) △8·15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8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10월)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시방세계 7면
조계타운 뜬다

무스탕을 아시나요? 8면
대학병원불자회 (信바람) 9면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14면

설 연휴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불교음악학과 첫 개설

순천 명신대, 불교음악협회와 협력 체결... 20일부터 원서 교부

불교계 최초로 불교음악학과가 생긴다. (사)불교음악협회(이사장 변영규)는 전남 순천 명신대학교(총장 이종필)와 산학협력을 맺고 불교음악학과를 개설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명신대학교 불교음악학과는 불교계 최초의 현대음악 전공 학과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은 합창지휘,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법대 등이다.

강사진은 명신대 음악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불자음악가들을 섭외하고 있다. 법패 전공의 경우 태고종 봉원사의 육천 범음대학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불교음악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불교 연주 단체와 연계, 현장적용 및 실기강화를 위한 인턴제 시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음악학과 설립을 주도한 명신대 기획실장 이윤주 교수(음악학과)는 “불교음악학과 개설로 현대불교음악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에서 활동할 음악가양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월 20~25일, 실기와 면접은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02)725-7527 김재영 기자 jygang@buddhapia.com

‘맞춤형’ 불교정보·생활의 지혜·감동깊은 이야기
부다뉴스 이메일 서비스 시작
buddhanews.com 2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송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저희 찬덕연등과 인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시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등 팔각봉축점등 공단등 팔각조립등(반야심경) 주름등(만월봉축등) 공단황금등

※ 연등, 카타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